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1995년도 표어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생활지침 ☉

- 1.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주를 위하여 섬기는 교회가 되자
- 2. 사랑과 감사와 기쁨으로 일하는 교회가 되자
- 3.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전(殿)을 건축하자

발행인: 이종윤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 517-7651 ~ 5 팩스 / 512-1225

1995년도 우리 교회의 주요 행사 일정

우리 교회는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표어로 시작한 1995년도에도 다양한 사업과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모든 행사들을 진행해감에 있어서 ①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주를 위하여 섬기는 교회가 되자(왕상3:6) ② 사랑과 감사와 기쁨으로 일하는 교회가 되자(행2:44-47) ③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전을 건축하자(왕상5:5)는 생활지침을 잘 기억하고, 천국일꾼 양성·만민에게 전도·빈약한 자 구제라는 우리교회의 목표와도 잘 부합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21세기를 목전에 두고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감격을 갖고 구원의 복음 속에 담긴 사도적 사명과 예언자적 비판의식을 바로

게 적용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하나님과의 관계와 자기 자신을 발견해 가는 일에서 성장하는 기회로 삼을 뿐 아니라 이웃과 더불어 일하기를 배워 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한 해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마음축제, 전교인수련회, 교사체육대회는 격년제로 실시하기로 함에 따라 올해는 개최하지 않는다. 따라서 올해 여름수련회는 교회 학교별로 실시한다. 교회갱신과 성장을 위한 목회자신학 세미나는 7, 8학기를 맞게되며 해외지도자를 초청하는 제 6차 김치신학세미나도 5월에 개최할 예정이다.

1월	· 1일 / 신년감사예배(성찬식) · 1일 / 공동의회 · 1일 / 순결서약식 · 6일 / 산상 수련회 · 8일 ~ 16일 / 청지기수련회
2월	· 교회학교별 겨울수양회, 겨울성경학교 · 지역장, 다락방장 세미나 · 상반기 장학금수여식
3월	· 27일 / 제 7학기 목회자 신학 세미나 개강 (6월 5일까지 매주 월요일)
4월	· 16일 / 부활절 예배(성찬식)
5월	· 25일 / 제 6차 김치(KIMCHI) 신학세미나 개최예배 (6월 3일까지 10일간)
6월	· 6일 '95 홍해작전 개전 (25일까지 20일간)

7월	· 2일 / 맥추감사절 예배(성찬식) · 교회학교별 여름수련회, 여름성경학교
8월	· 농어촌 전도대 파송
9월	· 4일 / 제 8학기 목회자 신학세미나 개강 (11월 6일까지 매주 월요일)
10월	· 8일 / '95 비전 2000운동 시작 (11월 26일까지 50일간)
11월	· 26일 / 95추수감사절 예배(성찬식) · 26일 / 교회설립 4주년
12월	· 3일 / 일꾼임명식 · 10일 / 찬양대원 임명식 · 17일 / 교회학교 교사 임명식 · 부서별 총회 · 23일 // 성탄축하의 밤 · 25일 / 성탄절 예배



◀ 신년 예배와 성찬식
예수님과 연합한 감격과 기쁨으로 한 해를 살며, 오실 때까지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 것을 다짐하면서...



송구영신예배
▲ 처음이요 마지막이시며, 알파요 오메가이신 하나님 앞에서 새해를 허락하심을 감사.
◀ 주의 이름의 영광만을 위한 한 해 되기를 서로 기원하며 (새해인사)

■ **지상강단**

오늘의 위기와 교회의 사명

■.....이 글은 지난 11월 17일 아세아방송국 제주 본부 주최 이준용 목사 초청 방송세미나에서 강연한 것을 발췌, 요약한 것으로 두 주에 걸쳐 게재한다 ... ■

차례

서언

I. 역사적 사건이 주는 도전과 교회의 사명

- ① 1789년 불란서혁명
- ② 1848년 공산당 혁명
- ③ 16세기 문예부흥운동
- ④ 1976년 방콕선언
- ⑤ 현실참여문제

II. 회복해야 할 교회의 사명

- ① 종교개혁 정신의 재발견
- ② 예언자 정신과 사도정신의 재발견
- ③ 한 몸된 교회관 회복

III. 우리의 응전 - 선교를 위한 교회의 사명

- ① 선교의 모델 - 그리스도의 성육신
- ② 선교의 대가 - 그리스도의 십자가
- ③ 선교의 힘 - 그리스도의 부활
- ④ 선교의 영광 - 그리스도의 승천
- ⑤ 선교의 긴급성 - 그리스도의 재림

결언

오늘 우리의 사회는 총체적인 위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교회는 어떠한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를 심사숙고 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의 위기 상황을 단순한 사회 병리 현상으로만 진단할 것이 아니라 영안을 열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보고 들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I. 역사적 사건이 주는 도전과 교회의 사명

먼저, 오늘의 시대 상황을 역사 속에서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후기 기독교사회를 맞이한 서양교회의 침체 원인을 살펴보면 한국 교회가 자던 잠을 깨고 사명을 재인식할 수 있을 것입니다.

① 1789년 불란서 혁명

당시 봉건 사회를 주도한 왕권에 아부하고 야합한 교회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사회 부패의 원인을 제공함으로써 사회로부터 비난을 받았습니다. 당시의 신학자들은 사변적 신학만을 논했습니다. 결국 혁명의 바람이 불자 교회는 백성들의 비난의 화살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는 진정으로 생명을 나누고 죽어가는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힘을 다하고 있는가요? 아니면 형식만

갖추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나 나아갈 길을 바로 밝혀 주고 있는가요?

② 1848년 공산당 혁명

초대교회 성도들은 유무상통하며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19세기 중엽부터 구라파의 모든 나라들은 자본주의의 잘못된 모습만을 강조하다가 교회 안에서 가난한 사람, 배고픈 사람이 나타나게 되었으나 부유한 사람들은 자기만을 찾으며 사랑과 공의를 상실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인본주의적인 평등만이라도 찾고자 노동자와 농부들이 낮을 들고 일어난 것이 공산당 혁명입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진정한 사랑을 베풀지 못할 때, 사회가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교세 확장에 너무 지나치게 관심을 가지다가 사랑과 정직함을 잃어버린 것이 사회를 위기에 처하게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들을 일으켜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신 역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하고 사명을 다하지 못할 때, 위기는 점점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③ 16세기의 이신론(理神論)

16세기 문예부흥운동의 사조는 하나님의 창조는 인정하나 역사를 운행하시고 섭리하는 것을 부인한 이신론적 인본주의 사상으로,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치 않았습니. 이와 같은 사고가 오늘날 교회 안에 만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기 뜻을 이루고 인본주의 운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원수는 네 집 안에 있느니라"고 하셨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내에 몰래 잠입해 온 인본주의 사상입니다.

④ 1976년 방콕선언

방콕선언에서 WCC는 불교, 힌두교, 모슬렘교 등 모든 종교가 연합하자고 하면서 탈(脫)기독교를 주장했습니다. 다원화된 사회와 종교사이에서 기독교만 주장하는 것은 배타적인 것처럼 말을 하고, 다른 종교를 흡수함으로써 마치 포용력있는 것 같아 보이나 이것은 기독교의 기본적인 진리를 흐리는 말이며 본질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⑤ 현실참여문제

현대교회는 평화에의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인구폭발문제, 자원고갈문제, 생태계 파괴문제,

환경 오염문제 등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교회가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고 이런 도전에 대해 어떻게 응전할 것인가에 집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가장 최우선 해야 할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선포하는 일임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II. 회복해야 할 교회의 사명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하신 모든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왔느니라"하신 말씀으로 집약됩니다. 천국과 회개가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바른 회개를 위해 회복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① 종교개혁정신의 재발견

종교개혁의 정신은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의 네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말씀중심이어야 할 교회가 교권주의로 치닫거나 몰량주의에 빠져, 섬기려 오신 말구유의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화려한 치장과 형식 속에서 은혜를 상실한 교회의 모습은 아닌지 반성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믿음만!'이라고 외쳤는데 우리는 너무 인간중심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세상의 영화와 이생의 사랑에 눈 멀지는 않았는지요?

② 예언자 정신과 사도 정신의 재발견

구약성서의 모든 예언자들의 주된 외침은 회개에의 촉구였습니다. 예언자 정신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은 교회가 회개의 메시지를 바로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재발견해야 할 사도정신이란 복음을 위한 희생의 정신입니다. 복음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며 자기 목숨을 초개와 같이 버렸던 하나님의 종들의 모습을 회복할 때, 한국교회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목회자와 성도들이 제자리에서 할 바를 바로 하며 복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③ 한 몸된 교회관의 회복

우리의 섬기는 자리가 다르고 역할이 다양하지만 모든 교회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모든 목회자들은 자신의 목회자 아니라 하나님의 목회(God's Ministry)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800M 계주자는 200M를 최선을 다해 달린 후에 바톤을 넘겨주어야 합니다. 그 이상의 책임을 지려하는 것도 우스운 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어진 일을 어떻게 성실히 감당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책무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몸된 교회관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약해질 때에 한국교회는 계속 분열하고 교회로서의 사명에 충실하지 못하게 되는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다음 호에 계속>

“주를 향하여 자기를 깨끗하게!” 순결서약식을 마치고

■ ... 지난 주일 찬양 예배 시에 322명의 청소년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 가운데 몸과 마음의 순결을 지킬 것을 서약하였다. ... ■

평범한 것부터 실천

순결서약식을 한다기에 처음에 나는 단순한 교회 행사에 불과 하리라고 생각했으나, 순결 서약운동에 관한 책자와 오리엔테이션 등을 통해 이 운동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절실히 느꼈다.

첫째로 언제, 어디서 순결을 상실할지 모르는 요즘의 청소년들이 이 운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깨닫고 지킬 수 있다는 점에서 하나님께 감사 드렸다.

둘째로 이 운동으로 인해 교회가 이 악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에게 알릴 수 있다는 것이 뿌듯했다.

셋째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고 순결 운동이 잘 전개되기 위해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

생활 중에 적용해 감에 따라 이 운동의 열매가 눈에 보일 것이다. 그래서 나는 아주 평범하고 작은 것 부터 실천해 옮길 생각이다.

이 태조 (중등부 3학년)



다. 아마도 처음해 보는 인생의 첫번째이자 마지막 순결 서약식이라는 생각 때문이었으리라.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겠다는 다짐으로 서약식을 마치고 바른 정신과 깨끗한 몸으로 살아갈 것을 결심하며 예배당을 나서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내 머리 속을 스쳐간 것은 '이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라는 생각이었다.

김 용 호 (고등부 2학년)



의미있는 새해 첫 출발

나의 1995년은 '하나님 앞에서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자'라는 표어 아래 진행된 순결 서약식에 참여함으로 의미깊게 시작되었다.

순결서약식이 있을 것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나는 '참 이상한 운동도 있구나'하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점차 '왜 이런 운동을 하게 된 것인가'로 바뀌었고 순결 서약식에 참여할 때까지 계속 되었다. 결국 사회가 급속도로 변화하면서 타락의 위협에서 자기를 지키는 일은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과 우리의 믿음으로 극복할 수 밖에 없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다. 사회가 타락해 간다는 생각은 나를 충격 속으로 몰아 넣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생각이 나를 위로해 주었다.

순결 서약식이 진행될 때 나는 상당히 떨렸



청년기의 결단

한 국가독교총연합회가 '정직, 절제, 사랑의 실천운동'을 실시하면서 순결서약식을 한다는 소식과 바로 그 운동의 시작이 우리 서울교회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나는 감사와 자랑스러움을 동시에 느꼈다. 점점 타락하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동떨어진 방향으로 나아가는 현실에서, 한국 기독교계가 사탄의 계락을 알아차리게 하신 것이 감사했고, 그런 올바른 운동의 처음을 우리 교회가 주관하게 되었다는 것이 또한 자랑스러웠기 때문이다.

한 형제가 나에게 이런 얘기를 해 주었던 기억이 난다. "글쎄, 내 친구 하나랑 같이 길을 가고 있었는데, 그애가 갑자기 길 한복판에 서더니 기도를 하는거야.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으니깐 자긴 짧은 치마 입은 아가씨를 보면 혼자 힘으로 절제하기가 힘들어서 '하나님, 음란한 생각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한다는 거 있지."

그렇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본능적인 욕구를 스스로의 힘으로 참아 내기는 어려운 것이다. 특히 그가 청년일 때에는 더욱 그러할 것이고, 자꾸만 더 혼란스러워지고, 잘못된 가치관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이 때에 우리 기독교 청년들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게 지키기로 서약한 것은 정말 아름답고 훌륭한 결단이라고 생각한다. 서약식을 준비하는 동안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좇으라"(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씀)

홍 지 민 (대학부 3학년)

주위의 후원을 기대하며

선 레임으로 기다렸던 서약식을 잘 마쳤다. 친구들에게 자랑하면서도 왠지 쑥스러웠지만 주님 앞에 서약을 한 만큼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 할 것 같다.

이 서약은 서약자 자신 뿐 아니라 부모님에게도 중요하겠지만, 이 서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각자의 의지와 아울러 주위의 관심과 기도의 후원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가치관을 정립하는 청년의 시기에 이 순결서약식이 큰 보호막이 되었으면 하고 그 약속을 지켜 나가도록 기도으로써 도울 수 있는 서로 서로가 되었으면 한다.

홍 진 선 (대학부 2학년)

순결서약서

성명: _____
19 ____년 ____월 ____일생

진정한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견디는 것"이라는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나오오
육체와 마음의 순결을 온전히 지킬 것을
하나님 앞에서
부모님과 여러 성도를 증인으로 삼고
엄숙히 서약합니다.

1995년 1월 1일
서약자

(인)

'95 청지기수련회

오늘 찬양예배 시 개강예배

1995년도 청지기 수련회가 「헌신된 청지기와 교회」라는 주제로 열린다. 오늘 찬양예배 시 개강예배를 드림으로써 시작하여 제직, 교구일꾼, 권사, 교사, 찬양대원, 전도회 임원순으로 계속되며 16일(월)에 장로수련회를 마지막으로 하여 마치게 된다. 청지기수련회 기간 중 새벽기도회는 5시에 시작한다. 직분자별 강의 내용과 강사,워크숍의 내용 및 담당자는 다음과 같다.

구분	제직	교구일꾼	권사	교회학교 교사	찬양대원	전도회임원
일자	9일(월)	10일(화)	11일(수)	12일(목)	13일(금)	14일(토)
5:00 5:30	청지기지도자론- 느헤미야서 강해 (강사:이종윤 목사)					
6:10	제직과 섬김	지역장, 권찰, 다락방장의 역할과 임무	권사와 교회 (20:40 ~ 21:30)	교사와 학생, 그리고 교육	찬양과 예배	전도회임원의 역할과 임무
6:15	강사:이종윤 목사	강사:김계호 목사	강사:장용휘 목사	강사:임진태 목사	강사:최병호 목사	강사:권상석 목사
6:30	자 리 이 동					
	위원회별 모임	각 지회별 운영계획	영성훈련 (21:30 ~ 22:30) 담당: 최병호 목사 유순화 전도사	효과적인 학습지도방안과 부서별 목표설정 담당: 지도교역자	찬양의 실제	각 지회별 운영계획
	담당: 지도교역자	담당: 지도교역자		담당: 지도교역자	담당: 허희철 집사	담당: 지도교역자

교회학교소식

■ 장년부 오늘 개교 - 교회학교 장년부가 개교한다. 집회는 II부 예배가 마친 후 12시 45분부터 1시 30분까지 2층 예배실에서 가지며 박형용 목사가 지도한다. 청년부 이상 소망부 이하의 연령에 해당하는 성도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 새가족부 집회장소 변경 - 신설된 장년부가 2층 예배실을 사용하게 됨에 따라 새가족부는 오늘부터 1층 예배실에서 집회를 갖는다. 집회 시간은 종전과 같이 12시 45분부터 1시 30분까지이다.

■ 중등부 겨울 수련회 - 중등부는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주제 아래 12일(목) ~ 14일(토)까지 양수리 수양관에서 겨울수련회를 개최한다. 강사는 김재호 목사이며 김성환 선생이 '주를 향하여 자기를 깨끗하게'라는 제목으로, 이회복 선생이 인간관계에 대하여 각각 특강을 한다.

중등부는 이번 수련회가 참여하는 모두에게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루는 영성훈련의 기회,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한 이웃과의 깊은 교제의 기회가 될 것을 기대하면서 교사연속기도회를 가지는 등 오랫동안 기도로 준비해 왔다.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① 쓰레기 분리수거 -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는 교회에도 예외없이 적용됩니다. 쓰레기를 최소화하고 일회용품의 사용을 줄이며 재활용품을 분리해서 버리는 일에 협조해 주십시오. 주문 도시락의 경우 깨끗이 사용한 후 주문한 곳으로 되돌려 보내어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합시다.

② 주차질서 - 교회 앞과 지하주차장은 새가족과 장애인에게 양보하고 차량관리위원들의 안내에 잘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에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은 대남빌딩, 제일은행, 중소기업은행, 한일증권, 삼성가전, 초당주차장, 대원주차장, 보람은행, 교회주차장입니다. 특별히 주일에 종일 교회에 계시는 분은 대남빌딩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

홍혜련 · 홍혜란(호산나 찬양대 오르가니스트) 쌍둥이 자매는 지난 3일 성남시 중원구에 「서연음악학원」을 개원하였다. 두 자매는 홍정호 장로 · 우선자 권사의 자녀이다. (서연음악학원 ☎ 0342) 46 - 1966)

▶ 새해 아침의 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마지막 때 남은 그루터기로 세우신
하나님의 크신 뜻과 섭리를 분별하여
성령과 말씀 충만한 서울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에게 영육간의 기쁨이 충만하여
남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게 하옵소서.
때로는 고통과 환난 가운데서도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을 본받게 하옵소서.

주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과
“주 예수 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송이
저희들의 거짓이 없는 참된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는 교회로서
생명의 말씀이 서울교회 강단을 통해 온 지구촌에 메아리쳐
하나님의 세계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당 건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21세기를 향도하는 근엄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설계로
저희 서울교회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 모든 일이 협력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95년도가 되게 하옵소서.

권영욱 (권사, 8교구)

■ 이종윤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837KHz) 「성경교실」 매주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극동방송(HLKK 1188KHz)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요일 오전 9시 ~ 9시 30분
대전 극동방송(HLAD FM 93.3MHz) 「늘푸른초상」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 6시 50분
아세아방송(HLAZ 1566KHz) 「주일설교」 매 주일 오전 8시 30분 ~ 9시
「주일설교 재방송」 매주 화요일 오전 4시 20분 ~ 4시 50분

서울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일년 동안의 모든 행사를 잘 진행할 수 있도록
2. 청지기 수련회를 통해 바른 헌신을 결단할 수 있도록
3. 순결서약을 한 청소년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깨끗이 지킬 수 있도록
4. 입시생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배움의 기회를 열어 주시기를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주일 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교회위치

